

# “설 선물 사전예약 하세요”...유통가 벌써 설 마케팅

### 롯데·이마트 등 대형마트 오늘부터 사전예약...고객 선점 나서 고물가 속 가성비 대세...알뜰·물가안정·차별화 세트 등 다양

유통업계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 연휴가 한 달 이상 남은 가운데 이른 선물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대형마트는 사전예약을 통해 고객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선물 수요조사를 통한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예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업계는 고객들의 부담 덜기에 힘쓰기로 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

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21일부터 내년 설 선물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이마트는 21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설 선물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설 선물 사전예약 기간 동안 가성비가 높은 '실용 선물세트'와 '차별화 세트' 등을 선보인다. 특히 매년 명절 선물로 우선 인기품목에 꼽히는 한우세트는 비교적 저렴한 10만원대 세트 물량을 대폭 늘렸고, '스테디셀러 한우세트'의 경우 올해

설 판매가보다 가격을 낮췄다. 인기품목인 과일류에서도 저렴한 가격대의 인기 상품 물량을 늘렸다. 과일 세트 중 수확이 높은 사인머스켓 세트의 경우 5만원대 이하 물량을 50% 늘렸고, 사인머스켓이 포함된 과일 혼합세트는 지난 설 대비 가격을 7%가량 인하했다. 주류는 최근 위스키 열풍을 반영해, 설 선물세트 최초로 위스키 사전예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21일~내년 1월 26일) 동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행사기간 동안 총 700여 품목의 설 선물세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알뜰 세트'를 개발하고, 선물세트 물

량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을 반영해 20만원 이상 가격대의 '프리미엄 세트'도 보강했다. 축산 선물세트는 올해 설 대비 10만원대 이하의 저렴한 '물가안정 세트'의 품목수, 물량을 각각 30%씩 늘렸다. 주류 선물세트의 경우 유명 브랜드의 인기 위스키부터 와인 2병 묶음 세트, 전통주까지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홈플러스 역시 같은 기간 '2024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사전예약 기간 동안 판매할 800여 종의 설 선물상품을 준비했다. 이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상품 수는 지난 설 대

비 약 20% 확대됐다. 특히, 설 선물세트 전체 상품의 67%를 3만원대 이하 저렴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 사전예약이 활성화되면 업계 뿐만 아니라 고객까지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된다"며 "대형마트는 명절 전에 실시한 사전예약 행사 동안의 주문량을 통해 미리 수요조사를 할 수 있어 재고 부담을 덜 수 있고, 고객은 사전예약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알지 못했던 상품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신세계, 소외계층 위한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

### 취약계층 난방비 1000만원 후원도

광주신세계가 20일 본관 1층 광장에서 '희망산타 원정대'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희망산타 원정대'는 광주신세계가 지역과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발대식에는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와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전남본부 본부장, 광주신세계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 이후 광주신세계 임직원들로 구성된 희망산타 원정대는 광주시 서구지역 그룹홈에 거주하는 학생 20명을 만나 겨울 외투와 신발 등의 선물을 전달했다. 희망산타 원정대는 광주신세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2003년 시작된 이후 20년 동안 매년 겨울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앞선 19년 동안 연탄을 배달했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적어지면서 올해부터 수혜자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대체했다. 이를 위



해 광주신세계는 사전에 소원 신청서를 받아 선물을 선택했다. 광주신세계는 이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전남본부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50세대의 난방비로 쓰일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희망산타 원정대는 광주신세계가 지역과 상생을 위해 지난 20년간 이어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30주년, 40주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동지팍죽 드시고 액운 물리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상무팍죽 매장서 판매 중인 동지팍죽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 상무팍죽 매장은 올해 동지(12월22일)를 맞아 21~22 일 이틀간 새알로 만든 동지팍죽을 참살밥과 함께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 한우·생필품이 반값...새해 첫날 신세계그룹이 화끈하게 쏜다

### 30일부터 일주일간 '데이원' 행사 2024명 경품 증정...1등 테슬라 차

신세계그룹은 새해를 맞아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 통합 할인행사 '2024 DAY1' (데이원)을 진행한다. 20일 밝혔다. 3회차를 맞은 데이원에는 이마트·SSG닷컴·G마켓·W컨셉·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신세계 L&B(와인앤모어) 등 7개사가 참여한다. 이마트는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사흘간 주요 가공품·생필품을 원플러스원(1+1) 또는

2개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한다. 1월 1일에는 행사카드로 결제 시 브랜드 한우 전 품목과 한우 등심·채끝을 50% 할인한다. SSG닷컴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최대 12% 할인쿠폰, 100% 적립금 당첨 포천쿠키 이벤트, 장보기 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신세계유니버스 클럽 회원에게는 '이날 아무 때나' 택배송 무료 쿠폰도 발급한다. G마켓·옥션도 12% 할인 쿠폰과 카드사 7% 즉시 할인 혜택을 주고, W컨셉은 할인을 높은 '24시간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이마트24는 인기 상품 18종을 1+1로 판매하고, 행사 카드도 5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쿠폰을 준다.

신세계그룹은 데이원 행사 기간 2024명에게 1억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1등 경품은 6천만원 상당 '테슬라 모델Y RWD' 차량이고, 그 밖에 순금 골드바와 신세계 상품권 등이 준비돼 있다. 경품 응모를 하려면 그룹 계열사별 경품 행사 기준을 충족시킨 뒤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그룹 7개사가 고물가 속 에 작년보다 더 강력한 '조저가 생활 밀착형'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백화점·마트 수수료 내리는데 온라인쇼핑몰만 올라

### 2022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가 지급하는 실질 수수료율이 전년보다 올라 12%를 넘어섰다. 유통업계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도 증가했다. 공정위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

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을 조사했다. 2022년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웃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체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2019년 9.0%였던 실질 수수료율은 2020년 10.7%, 2021년 10.3%를 거쳐 2022년 12%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